

광양시, 설 연휴 '광양에 와야 하는 7가지 이유' 제안

고요 속 생동... 정중동의 자연·예술·미식이 빛나는 느긋한 명절 여행

광양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느긋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광양에 와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백운산과 삼진강이 품은 고요한 풍경 속에서,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의 생동감과 문학·예술의 격조, 지역 고유의 미식이 어우러져 설 명절 여행의 품격을 더한다는 설명이다.

□ 봄마중 떠나는 설 명절, 소화정 매화 광양 설 여행의 시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소화정 매화다. 때 이른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설렘과 함께 봄의 기운을 전한다.

□ 기억을 걷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

망덕포구는 윤동주 시인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정병옥 가족이 자리한 곳으로, 문학적 기억이 살아 있는 공간이다. 특히 2월 16일은 윤동주 시인 순국 81주기로, 그의 삶과 시를

되새기며 방문하기에 의미가 깊다.

인근 배알도 섬 정원은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산책 명소로, 겨울 끝자락의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걷기 좋은 곳이다.

□ 고요한 사색의 시간, 옥룡사 동백나무숲

천년 고찰의 흔적을 품은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명절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다. 3월 개화에 앞서 '꽃이 피기 전의 숲'이 주는 깊은 녹음과 적요가 오히려 신비로운 매력을 더한다.

□ 도심 속 비밀상, 이순신대교

이순신대교 드라이브는 광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대교 양쪽으로 펼쳐진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은 낮에는 웅장한 스케일을, 밤에는 찬란한 장관을 선사하며 광양의 역동적 미래를 강렬히 각인시킨다.

□ 문화로 호흡하는 하루, 미술관&갤러리

전남도립미술관은 기증품 전시부터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동시대 미술까지 폭넓은 기획전을 통해 격조 있는 시간을 제



안한다.

인사리공원 반청고갤러리는 기획전 '겹과 겹'을 통해 조형 언어의 층위와 질감을 담당하게 보여준다.

□ 명절 피로 녹이는 이색 힐링, 광양와인동굴

폐철도를 재생한 광양와인동굴에서는 와인의 역사, 미디어아트, 트릭아트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며, 세계 각국의 와인도 맛볼 수 있다. 특히 와인족욕은 설 연

휴에 쌓인 피로를 풀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 이른 봄의 미식, 광양의 맛

여행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맛이다. 백운산고로쇠는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며, 제철 벚굴은 깊고 담백한 바다의 풍미를 전한다. 여기에 숯불 향이 살아 있는 광양불고기와 광양 닭숯불구이까지 더해지며 명절 여행의 여운을 오래 남긴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 '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식' 개최

군민과 함께 만든 청렴,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보성군은 지난 9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 보성군의회,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참여한 '2026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 및 서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최욱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보성군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간부 공무원 40여 명(5급 이상 읍면장 및 부서장)이 대표로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날 행사는 공감형·체감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보성군립국악단이 창극 형식의 공연 '임행어사 녹차문의 청렴 보고'를 선보이며, 청렴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 ▲부당이의 금지, ▲알선 및 청탁 근절, ▲외부 부당 간섭 배제 등을 담은 청렴 결의문을 공동 낭독하고, 청렴 구호를 제창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실현을 다짐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렴 실천을 전 조직 차원의 일상 규범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월 20일까지 부서 및 읍면에서 자체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전 직원이 업무일지 청렴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실천 의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전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청렴 실천에 동참해 군민 신뢰를 높이고, 청렴군정 실현으로 보성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배려하는 가까이, 감염병은 멀리하는 설 명절 쇠세요

영암군보건소, 병문안 문화 개선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 돌입

기관을 돌며 병문안 3대 원칙,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집중 홍보에 나섰다.

3대 원칙은 ▲확인하기-병문안 시간, 장소 ▲자제하기-감염성질환자·노약자 병문안 자제 및 영상·문자·사회관계망서

비스로 마음 전하기 ▲ 지켜주기-병문안 기록지 작성 및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반려동물·음식물 반입금지로 구성돼 있다.

동시에 영암군보건소는 9-13일을 병문안 문화, 감염병 예방 생활 속 실천 주간으

로 정해 의료기관, 복지회관, 오일장 등을 찾아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한 명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병문안 3대 원칙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함께 지켜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 설 명절 고흥서 장보면 20% 돌려받는다

고흥사랑상품권 지류 15% 카드·모바일 20% 캐시백 적립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새해맞이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모바일형 고흥사랑상품권 결제 시 20%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 적립 혜택은 상품권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명절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소비가 대형 유통업체나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통시장과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창(chak)' 앱을 통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결제 즉시 20%가 캐시백으로 쌓여 군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매우 크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45개 금융기관에서 월 5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식당·편의점·마트·병의원 등 관내 가맹점 2,49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고흥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장보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힘을 보탬 수 있다"며 "고흥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알뜰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과거 건물의 지붕을 덮을 때 주로 사용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나 벽면 내부에 석면이 확인되면 반드시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슬

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받으세요"

취약가구 전액, 일반가구 700만원까지 지원

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가구는 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 주민이 부담한다. 또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철거를 의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광군은 2026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28세(1998년~2007년 출생자) 청년들로, 1인당 연 최대 25만 원의 지원

영광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자 모집

을 받게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복지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이다.

전남청년 문화복지 카드는 도서, 영화, 공연,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2026년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수

혜자도 기존의 차감 방식 없이 전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신청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2월 20일부터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영광/이현식 기자

